

# 광주시 '일가정양립' 지원 대폭 확대

### 실내수영장 재개장·교육 프로그램 운영·여성 취업 서비스 강화 이달부터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장 장려금 신청

광주시가 시민들이 동시에 일과 가정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8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장 장려금'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기업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 사업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장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입학기(3~7월) 오전 10시까지 출근을 장려하는 것으로, 지난해 광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다. 광주시는 업체의 1시간 근로 손실분을 지원하며 근로자는 근무시간 감소에도 임금을 그대로 받는다. 광주시는 올해 지원 인원을 25명 늘려 125명으로, 대상 기업도 특수교육 사업장과 지사 영업소

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학부 모 직원이 2개월간 조정된 출근시간을 준수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69만원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로자 연차 보상',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지원', '임산부근로자 고용유지지원', '임산부 친화환경지원', '가족친화 경영지원금' 사업 등도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또 올해 새롭게 변화되는 가족친화인증 지표에 맞춰 지역 내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 경영지원금 확대 등에도 나선다.

교육 프로그램도 특색있는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도 신설해 시민에게 직업적 소양과 즐거움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력단절 여성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도 이어간다. 서구여성일하기센터는 지난해 87명이 참여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95%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에게 새로운 일에 대한 미래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도 인턴십을 통해 도전적인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문화개선·경력단절예방 사업을 운영해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에 힘을 보탠다.

입주기관인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선 긴급아 이돌봄지원, 시간제돌봄, 장난감 도서관, 육아상담 등 육아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설 노후 등으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내 실내수영장의 노후 기계를 전면 교체하고 안전검사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재개장할 예정이다.

성유석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시민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창출하는 공간을 확대하고, 촘촘한 일가정양립 지원사업 및 여성 원스톱 취업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3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광주도시공사는 "인권경영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경영인증으로부터 3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전문가의 객관적 심사를 통해 그 실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조직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도시공사는 ESG 경영원칙을 기반으로 직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인권경영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인권경영선언과 함께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요인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사는 또 인권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를 자체 개발해 인권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정민호 사장은 "최근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를 지켜보면서 공사도 예외일 수 없는 생각을 했다"면서 "ESG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인권경영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소방, 청소년이용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 야영장·지역아동센터 등 77곳 시설 점검·소화기 사용법 교육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청소년 이용시설 77곳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생활권수련시설, 야영장,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에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사용법 교육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정상작동 확인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점검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거 등이다.

특히 화재발생 시 피난·대피방법,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을 실시하며, 관계인 중심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률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실시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보건환경연구원

### 설 성수품 안전성 강화

### 11일까지 200여 품목 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소비가 많은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까지 광주지역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명절 성수식품인 전류, 떡류, 한과류, 식용유지류 등과 서부·각화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사과, 배, 도라지, 굴비, 병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 등 200여 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또 명절 전 제수·선물용 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식품도 검사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약과 등 과자류와 식용유지류는 산가(식용기름 부패도) ▲생선전 등 즉석식품은 식중독 원인균 ▲수산물은 방사능, 유해중금속 ▲과일류·채소류는 잔류농약 340종 등이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기준 초과 농산물은 서부·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즉시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서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조배식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에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 유형별로 선제적 안전성 검사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계절별·시기별 시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등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영화관에서도 다회용컵 사용해요

### 광주시 재사용 활성화 사업 전문 세척시설 등 기반 확충

광주시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사용하기 운동'을 확산한다.

시는 지난해 환경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통해 국·시비를 들여 서구와 광산구에 초음파세척기·살균건조기 등을 갖춘 전문 세척시설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북구에 전문 세척시설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세척시설을 갖춘 서구·광산구와 함께 1회용품 배출량이 많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구정 인근 카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본격 지원하며, 동구와 남구는 구비로 구정 인근 카페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공유 사업을 추진한다.

또 배달문화 일상화에 따른 1회용기를 줄이기 위해 시민이 공공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사용 가

맹점을 이용하거나 개인용기를 포장해 갈 때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도 신규 도입한다.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직자가 앞장서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을 이어간다.

광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3개년(2024-2026) 추진계획을 수립해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과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시청 직원과 청사 입주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다회용컵(공유텀블러)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용 실적만 3만3440개를 기록했으며, 탄소배출량 1.7t(개당52gCO2)을 줄이는 효과도 냈다.

손인규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심코 사용하는 1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챙기는 문화가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에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시·자치구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 전통시장 등 102개 시설물 대상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영화 상영관·여객시설 등 102곳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 자치구, 민관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법적 기준 준수 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변형·균열·누수 등 결함 ▲시설물 방화관리 및 안전사고 대비 비상 연락망 구축 여부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설 관리주체에 설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특성상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극적인 예방·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